

간호대학생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구 동향 고찰

노원정¹, 강지원², 이영진³*

¹가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²가천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원, ³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Research Trends Review of Undergraduate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to Develop the Entrepreneurship Program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Wonjung Noh¹, Jiwon Kang², Youngjin Lee³*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²Researcher, College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³Professor,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에 대한 관련 연구의 고찰 및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상 논문은 ‘창업’, ‘학생’, ‘교육’, ‘프로그램’, ‘훈련’의 주요 키워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정보서비스시스템, DBpia,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였다. 최종 선정된 논문은 200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학술지논문과 학위논문 35편이었다. 2011년 이후에 수행된 연구가 85.71%로 가장 많았고, 조사연구의 비중이 높았다(88.57%). 주요 독립변수는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등이었으며, 종속변수는 창업의도와 창업효능감 등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학과 대학생의 창업교육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대학생, 기업가정신, 창업, 교육, 문헌고찰

Abstract The study was performed to prepar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 education programs for nursing student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ext network of relevant studie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The research was found in the database of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Academic Information Service System, DBpia and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with keywords such as ‘entrepreneur’, ‘student’, ‘education’, ‘program’ and ‘training’. The final selected paper was 35 studies in Korea from 2000 to September 2016. The largest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ince 2011 with 85.71%, and the largest proportion of survey(88.57%). The major independent variables were entrepreneur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ship and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entrepreneur intention and entrepreneur self-efficacy. Based on this result, entrepreneur education programs will be developed suitable for the target, and it can promote the entrepreneur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Undergraduate, Entrepreneurship, Start-up, Education, Literature review

*Corresponding Author : Youngjin Lee(yjlee531@ajou.ac.kr)

Received December 18, 2018

Revised January 11, 2019

Accepted February 20,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미래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취업 뿐 아니라 창업에 대해서도 폭넓은 관심을 갖고,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1,2]. 대학에서 학부생 대상의 창업교육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은 미래의 전문직 종사자인 대학생들의 창업 의지를 향상시키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창업 관련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고용 창출 뿐 아니라 경제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이러한 사회적 상황으로 미국, 유럽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학생 대상의 창업교육프로그램이 여러 대학에서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전공 및 특성을 고려한 근거 기반의 맞춤형 창업교육이 개발되지 못하는 제한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창업교육의 효과가 높지 않으며, 실제적인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1].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조사한 201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결과를 살펴보면[5,6], 창업의 장애요인으로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 창업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창업에 대한 전반적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을 주요한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실제 창업자와 미래의 창업 준비자를 위해서는 이들의 이론적, 실제적 창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폭넓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간호 측면에서도 국내·외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 재가 환자의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진출 가능한 창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간호대학생은 임상현장 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이들이 창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창업자로서 활동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및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4].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은 졸업 직후 의료기관에 취업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 과정에서의 교수자 및 학습자 모두 간호대학생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으며, 국내 대학에서는 관련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간호사의 창업 사례도 보고되는 건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즉, 간호학 전공자가 창업을 희망하더라도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연구분야에서도 간호

대학생 및 간호사 대상의 창업을 주제로 한 연구는 시작 단계이며[7, 8], 창업교육에 대해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창업교육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의 마련이 필요하다[4].

현재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 대상의 창업의도 등 창업 관련 개인적·사회적 영향요인이 탐색되고[9-13], 창업교육 및 지원의 개발[14]과 그 효과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15-18]. 그러나 이 중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적용해 본 연구는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4].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창업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 간호학과를 포함한 국내 대학생들에게 포괄적으로 제공된 창업교육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선정된 문헌에서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출현하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화시켜 특별히 연관성을 보이는 중요한 단어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19]. 이를 통해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호대학생의 창업교육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유용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추후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연구 개념을 분석한다. 셋째,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구의 결과를 분석한다. 넷째,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구의 초록에서 추출한 핵심 키워드 간 동시출현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추후 창업교육프

로그림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논문의 초록에서 추출한 키워드간 동시출현 관계를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핵심키워드와 연구 주제를 탐색하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연구이다.

2.2 문헌선정기준

본 연구의 대상 문헌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과정은 Cochrane collaboration의 체계적 문헌고찰 핸드북 [20]을 준수하여 Fig 1과 같이 문헌고찰 과정을 수행하였다. 문헌선정기준은 체계적 고찰 보고기준(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PRISMA])에 따라 대학생에게 실시한 창업지원교육에 대한 핵심질문(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s, Outcomes [PICO])의 선택, 배제기준에 따라 국내외 전자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시행하였으며 PICO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특정한 중재의 효과를 종합하고자 수행된 연구가 아니므로 PICO 중 중재와 비교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을 사전에 설정하여 문헌검색을 하였다. 대상자(Patients)는 학생이며, 결과변수(Outcome)는 ‘창업의도’ 또는 ‘창업의지’이었다. 구체적인 선정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정기준>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구 둘째, 한국어 또는 영어로 기술된 연구

<제외기준>

첫째, 학술대회에서 초록으로만 발표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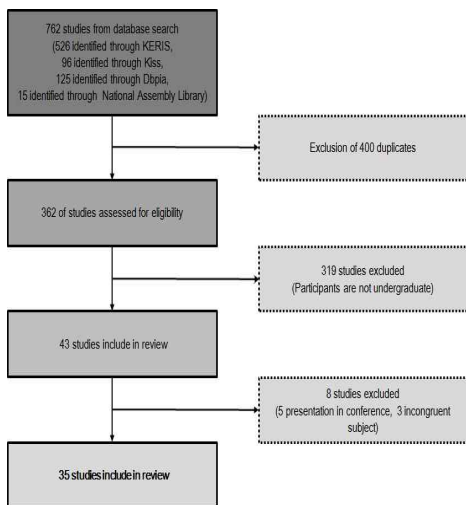


Fig 1. Data collection process

대상 논문은 RISS 526편, KISS 96편, DBpia 125편, 국

회도서관 15편으로 총 762편이 검색되었다. 이중으로 추출된 연구 400편을 제외하고 362편을 1차로 선정하였다. 이중 연구대상이 대학생이 아닌 319편을 제외하고 43편을 2차로 선정하였다. 이중 학술대회 발표 연구 5편과 주제에 적합하지 않은 3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5편의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의도 또는 창업의지를 살펴본 연구 35편의 고찰을 위하여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연구 개념 분석을 위한 코딩북을 작성하고 간호학 교수 2인이 독립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연구 개념의 기술통계분석은 Microsoft Excel 2013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또한 선정된 논문의 초록을 자료범위로 설정하고 키워드 간 동시출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VOSviewer_1.6.9를 활용하여 관련 데이터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구의 일반적 특성

최종 선정된 35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총 35편의 연구 중 23편(65.7%)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대상 논문의 출판년도는 2000년부터 2016년 까지였으며, 많은 연구들이 2011년 이후에 수행되었다(30편, 85.7%). 또한, 조사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며(31편, 88.6%), 중재연구(2편, 5.7%)와 창업프로그램에 관련된 문헌분석 연구가 2편(5.7%) 게재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61명부터 4,143명까지 다양하였고, 300명 이상의 대상자에게 수행한 연구가 19편(54.3%)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 선정 시, 특정 전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1편(31.4%)로, 세부 전공 분포는 공학 4편, 경영학 3편, 관광학 2편, 간호학 1편, 안경광학 1편이었다.

3.2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구의 주요 개념

3.2.1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최종 선정된 35편 연구에서 다루어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독립변수는 창업자의 특성에 관련된 변수와 창업교육프로그램 및 외부 지원과 관련된 변수로 분석하였다. 창업자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는 ‘창업효능감’이 11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기

업가정신, ‘창업경험’, ‘창업의도’가 주요 변수로 조사되었다. 창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성장환경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은 기타 특성으로 분류되어 31편이 있었다. 창업교육프로그램 및 외부 지원과 관련된 변수에는 창업관련교육프로그램, 사회적 창업지원프로그램 및 국가 정책 등을 분류하였다.

중속변수는 ‘창업의지/ 창업의도’가 29편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자신감/ 창업효능감’ 3편, ‘창업실행/ 창업행동/ 창업탐색활동’ 3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타 변수로는 ‘기업가정신’, ‘창업교육요구도’, ‘창업교육효과’ 등이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5)

Variables	Category	N(%)
Publication type	Dissertation	12(34.3)
	Journal publication	23(65.7)
Publication Year	2011 ~ Present	30(85.7)
	2006 ~ 2010	2(5.7)
	2000 ~ 2005	3(8.6)
Research design	Survey	31(88.6)
	Intervention	2(5.7)
	Others	2(5.7)
Number of participants	Above 300	14(40.0)
	Under 300	19(54.3)
	None	2(5.7)
Participants' major	Record	11(31.4)
	None	24(68.6)

Table 2.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in research

Independent variables		N*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Entrepreneur self-efficacy	11
	Entrepreneurship	9
	Entrepreneur experience	6
	Entrepreneur intention	5
	Others	31
Entrepreneur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		28
Dependent variables		
Entrepreneurial intention		2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3
Entrepreneurial activities		3
others		5
* Duplication		

3.2.2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구의 주제어

최종 선정된 35편의 연구에서 제시한 주제어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주제어는 56개 종류 130개가 제시되었으며, 개인차원, 조직 및 정부차원, 프로그램, 기타로 분류하였다. 개인차원의 주제어는 25개(44.6%)로 총 74회(56.9%) 언급되었으며, 10회 이상 제시된 주제어는 창업의지(16회)와 기업이 정신(13회) 이었다. 프로그램의 주제어는 18개(32.1%)로 총 37회(28.5%) 언급되었으며, 10회 이상 제시된 주제어는 창업교육(11회)과 창업(10회) 이었다. 조직 및 정부차원의 주제어와 기타 주제어는 연구 대상이 4회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2회 언급되었다.

Table 3. Keywords in research

Keyword	Type of keyword N(%)	Number of keyword N(%)
Individual concept	25(44.6)	74(56.9)
Organizational or governmental concept	9(16.1)	11(8.5)
Program or intervention	18(32.1)	37(28.5)
Others (research methods, participants)	4(7.1)	8(6.2)
Total	56	130

3.2.3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구에서 다루어진 이론적 모델

최종 선정된 35편 연구 중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4편(11.4%)으로 이중 3편의 논문에서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Wentzel, Filisetti & Looney의 MST 동기체계이론을 활용한 연구도 있었다.

3.3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구의 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

최종 선정된 35편의 논문을 분석 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출현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student’, ‘entrepreneurship’, ‘business’, ‘startup’, ‘education’, ‘intention’, ‘self-efficacy’, ‘knowledge’ 등이었다. 그 중에서 출현 빈도수가 높은 ‘student’를 기준으로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관계는 ‘entrepreneurship’이었고, 그 다음으로 ‘education’, ‘business’, ‘intention’, ‘startup’의 순서로 빈도수가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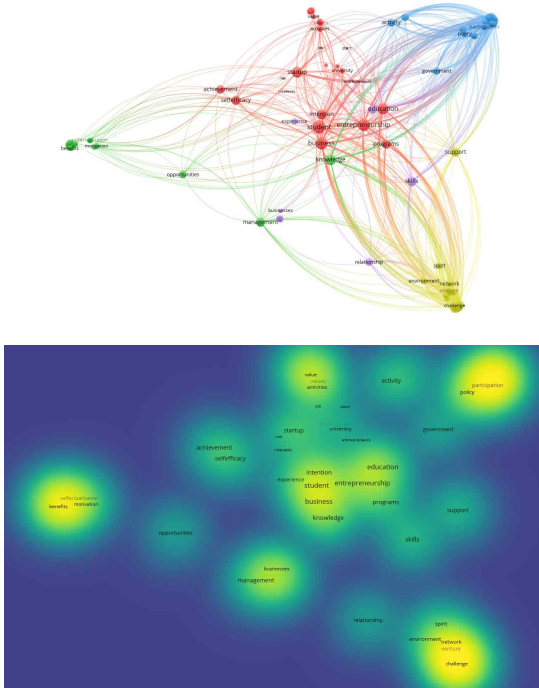


Fig 2. Text network analysis of keywords

4. 논의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에게 수행된 창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최신의 연구동향을 확인함으로써 간호학 및 보건의료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학부수준의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4.1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구의 일반적 특성

창업 관련 연구는 2011년 이후 증가 추세로 조사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의 창업교육 경험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실제 창업자 중 과거 창업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도 2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또한 이들이 제공받았던 창업교육은 서울, 부산, 세종시 등의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야별로 참여율의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5, 6].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창업자들의 창업교육 참여경험은 15.8%로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경험을 보고하였다[5]. 이렇듯 창업교육을 제공받는 대상자의 폭이 좁고, 일부 지역 및 전공영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지역과 전공에 제한 없이 간호대학생 및 보건의료 전공 대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대학 재학생들이 창업 관련 교육 및 창업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학교 차원 및 사회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2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구의 주요 개념 분석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창업효능감 등 창업 관련 개인적 특성과 창업교육 경험에 따른 창업의도, 창업효능감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더불어 대학생의 실제적인 창업행동, 창업탐색 행동, 창업실행 등을 실천정도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들도 있었다. 또한, 국내 대학생 대상 창업 프로그램 연구에서 텍스트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출현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student’, ‘entrepreneurship’, ‘business’, ‘startup’, ‘education’, ‘intention’, ‘self-efficacy’, ‘knowledge’ 등으로 도출되었다. 선행연구들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대학생 창업교육의 핵심 성공요인은 학부수준에서부터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된 창업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도출되었다[21]. 그러나 간호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4] 간호대학생은 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간호의 전문적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창업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지향성과 창업의도는 요구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다수의 학생에게 창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대학생 대상 창업 관련 연구 및 현장강화와 같은 간접경험 등을 통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창업의지 자체가 낮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도출된 키워드는 국내 대학생 대상 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기 보다는 개괄적으로 창업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키워드 동향에 대한 부분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추고, 장·단기적으로 개방적인 시야를 갖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4.3 간호대학생의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략

간호학 및 보건의료분야 전공 학생들의 성공적인 창

업의 가능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실제 창업자가 말하는 성공적 창업을 위한 교육요구도는 창업 준비를 위한 이론과 실습으로 크게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5, 6].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은 ‘창업경영 이해로 기업설립과 창업, 창업회계, 창업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환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 ‘창업기회 탐색’, ‘창업 특화를 위한 유망분야’, ‘기업가정신 체고’ 등을 위한 이론과 지식이 요구되었다. 한편, 창업 준비 및 성공적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실습부문의 교육요구도는 ‘창업·벤처기업, 박람회, 전시회 등 현장견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벤처기업 인턴십’, ‘창업시뮬레이션 등 모의창업 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등 창업실전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기존에 제공되었던 창업 관련 이해 및 지식의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실제 창업실행을 위해 도움이 되는 시뮬레이션 및 실습, 현장학습 등 다면적인 교수법과 내용으로 설계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문헌 고찰을 시행하여 간호학 관련 특성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추후 창업 관련 연구동향 파악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의료분야 전공 대학생의 창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대학생에게 수행된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구의 동향을 확인함으로써, 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의 창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킨다면 간호학과 대학생의 창업교육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유용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W. J. Lee, Y. T. Kim & Y. HwangBo. (2013). A study on the feature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overseas universities : case of five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1), 99-110.
- [2] J. P. Hong & H. S. Yang. (2014).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determinant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1), 141-157.
- [3] J. J. Chrisman, T. Hynes & S. Fraser. (1995). Faculty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 of the University of Calgar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4), 267-281.
- [4] O. J. Lee. (2016). *A Predictive model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5]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2015). *2014 Startup Statistics*, Daejeo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 [6]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2016). *2015 Startup Statistics*. Daejeo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 [7] M. J. Shin. (2011). Perception about the elderl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terested in the elderly care busi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4), 551-562.
- [8] Y. Lee. (2008). Establishment of nurse's long-term care institution. *The Korean Nurse*. 47(1), 42-45.
- [9] B. S. Kim. (2012). A study on the entrepreneur's psychological traits and entrepreneurship: focus on the process model.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9(1), 119-152.
- [10] Y. J. Kim. (2014). The effect of the youth perceived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self-leadership strateg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77-85.
- [11] Y. J. Kim, Y. K. Kwon & H. H. Yoon (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colleg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ood 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7, 7-26.
- [12] H. G. Song. (2013). The study of entrepreneurship in

the food service businesses on management performance. *Journal of Food 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6, 97-118.

- [13] R. R. Lee & S. Y. Lee. (2016).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sonal traits to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5), 217-225.
- [14] H. W. Yim. (2018). A study on development of SMEs Start-up Consulting Course by Convergence subject STEAM.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381-387.
- [15] Y. J. Kim & B. S. Noh. (2012). A stud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ffect on the self-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6), 23-31.
- [16] H. S. Kim. (2015). A study on the convergence entrepreneurship curriculum develop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5), 79-88.
- [17] K. S. Noh & H. J. Kang. (2012).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promotion policy and alternatives to revitalize the youth strat-u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9), 79-87.
- [18] I. O. Jeon. (2012). Established business start-up support impact on the youth of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1), 103-114.
- [19] E. J. Park, Y. J. Kim & C. S. Park. (2017). A Comparison of Hospice Care Research Topic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Using Text Network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5), 600-612.
- [20] S. Green & J. Higgins. (2005).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version 5.1.0. London, UK: The Cochrane Collaboration [cited 2018 November 8].
- [21] J. I. Choi & C. Park. (2013). The key success factors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implication from USA university ca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8(3), 85-96.

노 원 정(Noh, Wonjung)

[정회원]



- 2005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10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4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가천대교 간호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성과, 간호원가, 창업
- E-Mail : wjnoh@gachon.ac.kr

강 지 원(Kang, Jiwon)

[정회원]



- 2008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14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8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8년 2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강사, 가천대학교 간호대

학 연구원

- 관심분야 : 간호인력, 간호교육, 창업
- E-Mail : sniky@korea.ac.kr

이 영 진(Lee, Youngjin)

[정회원]



- 2002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07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4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6년 8월 ~ 2017년 8월 :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9월 ~ 현재 :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성과, 간호인력, 창업
- E-Mail : yjlee531@gmail.com